

제목: "나귀를 타신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11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서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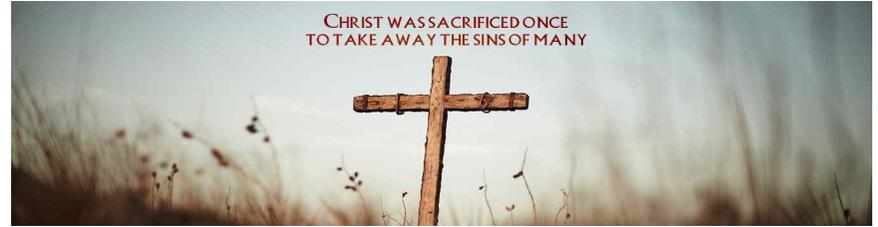
1. _____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2. _____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3. _____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종려 주일예배 Palm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 양 다 같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21장 1-11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21: 1-11 신약 34 페이지 President
- 말 씬 "나귀를 타신 예수님" 김성민 목사
 Message Why did Jesus ride a donkey? Rev. Kim
- 성 찬 식 다 같 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 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 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늘 사용하는 펜 Pen)

나의 책상 위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컴퓨터가 있고, 책들이 있으며, 밝히는 등(Lamp)과 서류들이 많이 쌓여있다. 그런데 그것들 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글을 쓰는 펜(Pen)이다. 4개의 큰 컵에 담겨져 있는 펜들은 여러 종류다. 색깔별로도 많고 어디서 받아 왔는지 공짜로 여기저기서 받은 펜들이 적어도 100개는 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펜들이 전부 잘 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하게 필요해서 사용할 때에 잘 나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잘 나오는 몇 개의 펜으로 글을 쓰고 중요한 일을 한다. 잘 안 나오는 것은 버리려고 늘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펜들이 있다 보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못쓰게 된 것들이 더 많게 되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펜들도 몇 개 되는데 유명하고 비싸면 무엇할까?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잉크가 굳어버린 쓸모없는 걸모습만 “몽블랑”이다.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늘 사용 받을 수 있는 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리고 하실 때 그 주인과 같이 또한 새끼 나귀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드리진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나의 책상의 많은 펜 중에 60%는 잘 사용하지 못할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깜빡 잊으신 것도 아니고 어쩌다 사용 받으신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용 받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쓰임 받고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고 하셨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예수님의 최선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준비된 사역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잉크가 나오다 말다하는 나의 책상 위에 많은 펜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색을 내고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잉크가 안에 들어 있는 사용할 만한 펜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사용 받는 종의 삶이 되도록 힘을 다하자.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지난 2년간 하던 대로 고난 주간 (4월 11-15일)인 내일부터 오후 9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9시 30분 이전(적어도 5분전)에 접속하셔서 찬양을 듣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도 아닌, 각자의 집에서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월요일 (11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화요일 (12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
수요일 (13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목요일 (14일):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금요일 (15일): 직접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5. 부활절 특별 친교와 식사 시간

다음 주일 4월 17일(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이석순 장로님 맥으로 자리를 옮겨 맛있는 식사와 새로운 가족 환영과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3/4월 행사

4월 11-16일 고난 주간 (11-15일/특별 기도회, 오후 9시 30분/온라인)
4월 17일(주) 부활절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oregon@gmail.com